

경북교육청 내년 예산 5.9조…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올해 5조1162억 보다 8067억 ↑
중앙정부 보통교부금 증가 영향
수요자 중심 미래형 교육체제 중점

경북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으로 5조9229억원을 확정하고 최근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의 5조1162억원보다 8067억 원(15.8%) 더 많다. 이 규모로 늘어난 것은 올해 중앙정부가 내려준 보통교부금이 8538억원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교육청은 내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지원 폭을 놓고 최근 논란이 된 무상급식비는 올해보다 570억원이 늘었다. <뉴스스 9월28일 보



경북교육청.

도 참조)

이는 그동안 무상급식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 60%, 도청(12%)과 기초자치단체(28%)가 40%를 부담해 온 것을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올해보다 20% 증가한 80%를 부담하고 식품비 단가를 올해 대비 20% 올렸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에서는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

소'를 위해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 309억원 ▲수학교육 활성화 148억원 ▲정서행동 발달지원 28억원 ▲학생 수련활동 지원 46억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125억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241억원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방과후학교 운영 47억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79억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172억원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지원 74

억원 ▲소규모학교 운영 체제 개선 266억원 ▲특성화고 지원 139억원 ▲마이스터고 지원 117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4815억원 등이 배정됐다.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 227억원 ▲누리과정비 지원 및 운영 1826억원 ▲유치원 종일제 운영 78억원 ▲유아교육 지원 25억원 등이 편성됐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내년도 본예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 현장을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교육 회복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을 도입하고, 특히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대상별 맞춤형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등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 지원 및 국가교육 책임 강화와 수요자 중심 미래형 교육체제 실현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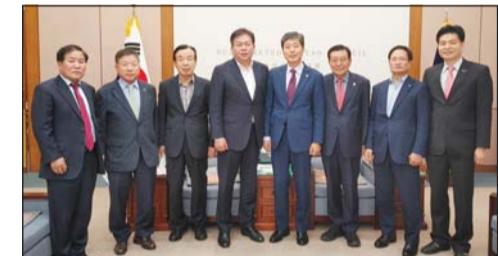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밀양시

'인력난' 농촌 일손돕기 참여

밀양시는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15일 산내면 소재 사과 수확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일손을 보태고자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밀양시에서는 10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일손돕기 추진 기간으로 지정해 부서별 1회 이상 일손돕기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농촌일손돕기 추진센터를 운영해 일손부족 농가와 일손돕기 지원 희망자를 연결하고 있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허현도 부울중기중앙회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예방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장은 15일 부산광역시의회를 찾아 안성민 의장을 예방했다.

이번 방문 자리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미음산업단지 창고업 입주 허용 용역 관리기관 직접 시행 ▲서부산유통지구 '사무처리 특례 적용 배제' 조속 추진 ▲산업단지 내 사업장 진·출입로의 계속도로 점용료 인하 등 중소기업 협안과제를 건의하고, 업종별로 다양한 현장 애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이도식 기자



/남해군

남해군 웰컴센터 착공… 관광자원 본격화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추진

남해군은 이달 중 '웰컴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은 1973년 개통된 남해대교를 '교량 테마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1973년 개통과 동시에 국민관광지로 이름을 날렸던 남해대교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노량 앞바다의 절경과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노량 일대 곳곳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의 첫 시작을 알릴 웰컴센터는 연면적 650㎡, 건축면적 434㎡ 규모로 지상 1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립된다. 사업비는 25억 원 소요 예정이다.

내외부에는 사무실, 카페, 야외쉼터 등이 조성되며,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공간과 남해대교를 조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꾸며진다.

12월에는 야간경관조명 조성 사업 착공에 들어가고, 내년 봄에는 모험 놀이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 재난 컨트롤타워 구축 위해 머리 맞댄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공조 현장상황 정보공유 방안 등 논의

경남도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공조 기반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최근 실국본부 장회의에서 도·시·군 재난상황실, 자치단체 CCTV 관제상황실, 112경찰 상황실, 119소방상황실 등 상황실 간 원활한 업무협조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관 간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소방, 경찰 등 관련 기관들과 컨트

론타워 구축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 준비단계에서 112상황실, 119상황실, 시군 CCTV 관제실, 도 재난상황실 간의 현장상황 정보공유 방안과 밀집도 판단·대응기준을 논의한다.

재난발생 단계에서는 재난유형별 응급 구조·구급, 응급의료 및 군부대, 자원봉사 인력동원 기준에 대한 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게 된다.

경남도는 정부에서도 전반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개편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중앙정부 체계 개선 내용에 따라, 경남도의 실정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고 재난대응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완도군, 귀농·귀촌 정책 추진 '박차'

인구일자리정책실 귀촌지원팀 신설

완도군에서는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귀어, 귀농귀촌인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민선 8기 조직 개편시 인구일자리정책실에 귀촌지원팀을 신설하고 귀어, 귀농귀촌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완도는 우리나라 수산1번지로 수산 양식과 어선 업체 등 귀어하기에 좋은 여건뿐만 아니라 온화한 기후, 깨끗한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한 농업, 생활 여건 등 완도만의 장점을 홍보하며 귀어, 귀농귀촌인 유입에

힘쓰고 있다.

현재 군에서는 귀어가·청년 어촌 정착 지원,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융자), 농어가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 어울림 마을 운영, 귀촌 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인 모임 육성, 귀농귀촌인 역량 강화 및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귀촌지원센터의 경우, 각종 정보 제공 및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귀어, 귀어·귀촌 인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신안군, 가뭄 선제 대응 효과 '톡톡'

대체 수원 활용방안 마련

30년 만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신안군의 선제 대응이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신안군은 전체가 섬으로만 형성되어 대부분 지방상수도로 평시에도 육지에 비해 급수 조건이 열악하다.

특히 유례없는 30년 만의 가뭄으로 11월 14일 현재 신안군의 강수량은 654mm로 평년 강수량의 62%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상수도 13개소의 평균 저수율이 17~30%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신안군의 선제 대응이 효과를 발휘해 안팎의 호평을 받고 있다.

우선 신안군은 가뭄 장기화를 예상

하여 금년 2월부터 재난 수습이 아닌 사전 대응을 위해 대체 수원 활용방안 마련과 함께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등 총 4단계로 사전 비상급수체계를 확립해 대응했다.

이 대응 계획에 따라 신안군은 자체 예산 28억원을 조기 투입하여 지하수, 농업용수 펌핑 등 대체 수원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치컵 사용하기, 빨래 모아서 하기, 상수도를 이용한 농작물 물주기 금지 등 물 절약 캠페인을 적극 진행했다. 캠페인 결과 암태·비금면의 경우 하루 450톤 이상의 물 절약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영주시 평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버섯키우기 키트 지원

경북 영주시 평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독거어르신들에게 느타리버섯 키우기 키트를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한 키트는 일주일 정도 하루 두 번 물만 주면 버섯을 수확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하다. 협의체에 따르면 위원들이 키트 관리도 주기적으로 도와줄 계획이다.

/영주(경북)=이상호 기자